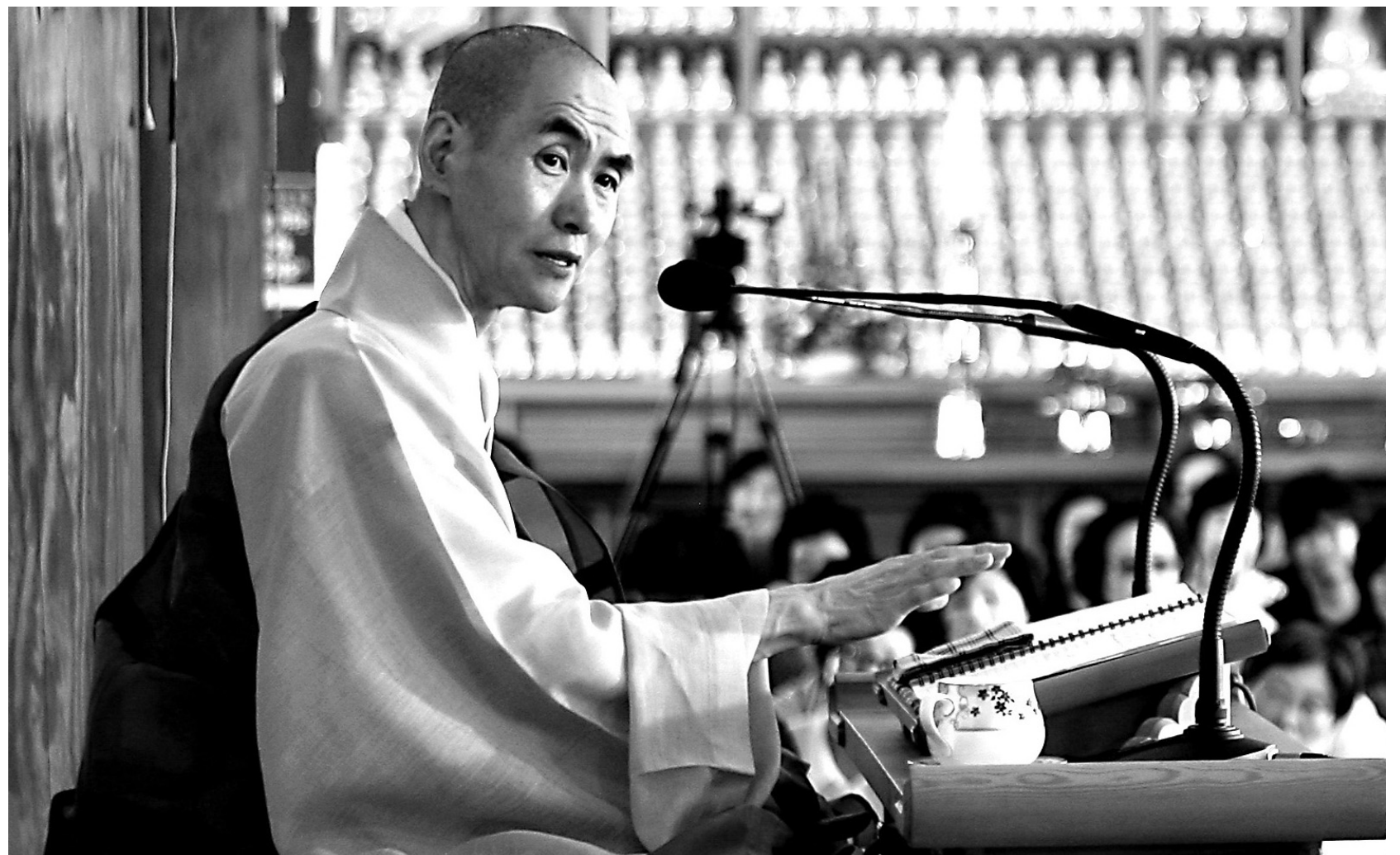


봉은사 선교을 대법회

도일 스님 (송광사 율원장)

계율은 밤길의 등불...행복 지름길



도일 스님은 ... 1973년 양산 미타암에 입산, 1975년 통도사에서 득도했다.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현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이다.

요즘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성폭력 기사는 혼탁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인면수심의 현장을 전해 들으며 법 이전에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불교의 역할을 돌아보게 된다. 탐욕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불교 정신이 혼탁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9월 2일 봉은사 법당에서 열린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의 선교을대법회 '계율에서 배우는 인생의 행복'은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계율을 지키며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일러준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은 밤길을 갈 때 등불을 얻은 것과 같다'고 말한 도일 스님. 이번 법문에서 스님은 '불투도'를 주제로 양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하늘도 높고 바람도 청량하고 가을의 기운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을의 청량함과는 달리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리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괴롭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계율 정신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밤길을 갈 때 등불을 든 것과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계율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복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가 스님들조차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재물 권력 이런 거 다 버리고 출가한 젊은 스님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예'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물며 스님들도 이리데 속세에 사는 불자들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종교 문화 이런 거 정말 염증이 나도록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몇 만개 되는 교회와 몇 천 개 사찰이 있고 곳곳에 온갖 문화 행사가 도처에 다 열리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을 느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게 자기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생각해 보면 같은 조건이 두 개 놓여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을 10으로 봤을 때 9%가 불행이고 1%가 행복인데 우리는 불행 쪽으로 자신을 몰아넣고서는 자신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잡아당기게 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그 사람은 행복

해집니다. 예를 들면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 한 조각 콩나물 반찬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먹는 순간 "콩나물 김치로 밥을 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행복인데, 반대로 진수성찬도 "왜 이리 맛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음식은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 어디에 가 있는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적어서, 자식이 공부 못해서, 이렇게 탓을 합니다. 이런 외부 조건에 불행을 전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 자기 자신이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불투도(不偷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불투도는 '도둑질 하지 말자'는 말이지요. 하지만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심을 속이고 사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제가 아는 불자님 한 분이 곰탕집 개업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미료 없이 음식을 내놓았더니 맛이 없어 못하겠다고 손님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수거해 가서 조미료를 한 숟가락 탁 털어 넣고 다시 내놓았더니 "그래 바로 이 맛이야"라고 손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화학조미료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추겠다고 음식에 조미료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돈 벌어보겠다고 조미료 듬뿍 넣는다면 이런 게 다 도둑질입니다.

요즘 빵집 치킨집 커피집 이런 게 너무 많죠. 대기업이 이런 사업 뛰어들었다고 말도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대기업만의 문제일까요? 조금 다른 시각에



도일 스님은 9월 2일 봉은사 선교을 대법회에서 '불투도'를 주제로 현대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계율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 법문했다. 참석자들이 스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행을 선택"

자기개발 · 정진 · 연구는 도둑질 안하는 방법 (불투도)

글로벌 인재 키우려면 불교의 계정해 가르쳐야

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 가보면 대기업은 흉내도 못 낼 맛있는 메뉴에 멋지게 인테리어를 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일본만 해도 대학교수 하다가 아버지 국수집 물려받습니다. 그만큼 장인정신을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프랜차이즈 너무 좋아해서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다 똑같은 가게만 있었잖아요. 문제는 대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렇게 노력도 안하고 연구도 안하고 쉽게 장사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개발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가는 말에 편승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단히 정진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정진하고 노력하는

것도 도둑질 안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대기업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일반인들이 해야 할 일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대기업의 도덕성이겠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용, 고객에 대한 배려, 자부심 이런 것들이에요. 불가가 오름다고 재료의 질을 낮추면 안돼요. 늘 똑같이 그 맛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신용이죠.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죠. 단골이라고 또 새로운 손님이라고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돼요. 또한 자신이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해 매진하고 정진하며 자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게의 질적 수준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서야 장사하는 사람의 도덕률도 서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장인정신입니다. 물론 이런 장인정신은 장사하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 모두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주부가 콩나물 무침 때도 장인정신이 필요하니까요. 오랜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부처님께서 '도덕률'을 내놓으실 때는 깊은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계율은 승가에서는 어떻게 적용 될까요? 가령 사찰에서 기와불사를 한다고 시주를 받으면 스님들은 그 돈을 기와장 사는데만 써야 합니다. 돈이 남는다고 문짝도 고치고 다른 불사에 쓰면 죄가 돼요. 부처님께서도 이를 철저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계율을 어기면 호용죄(互用罪)에 해당이 돼요.

대만 사찰은 이런 걸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주돈도 항목별로 나누어 받고 있어요. 대

중 스님, 주지 스님 이렇게 팻말을 나누어 부처 놓으면 신도들이 보시금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 신도들은 많은 돈을 한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보시를 하게 돼요. 우리랑 보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많은 신도님들이 보시 공덕을 짓고 싶지만 액수를 크게 내야 될까 걱정을 하죠. 가난한 사람이 천원만 보시해도 열 명 모이면 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일년에 두 번이라도 보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보시라는 게 큰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율에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율은 유교 덕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교 공부 잘하면 세계의 모든 학문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학보다 더 뛰어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불법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면 불교를 가르쳐야 합니다. 계정해(戒定慧)를 모르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율을 공부하면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계학을 먼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사회 각 분야에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회도 정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법을 알고 실천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kak.com

화제의 신간 작대기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아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果와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아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 서로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만의 조화로운데 있다. 들만이 어디 그냥 들만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지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저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범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저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 新사주학 핵심비결 | 한국인의 별점 | 자미두수 비법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功念 지음 / 4x6배판/양장본/70,000원 |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 4x6배판/高山 명칭중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 그림 당사주 대전 |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풍수 양택통론

우영 서성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 4x6배판/이선암,전효일 공저/양장본/25,000원 |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2 권 680쪽/각 권 50,000원 |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